

2024년 10월 5일(토요일)
빠당시, Indonesia.

보내는 이 : 정이브라힘, 김사라(예림,유신) 올림
이메일 주소 : jjs1026@gmail.com/ 카톡ID : jjs1026

살~롬!! 그 동안도 주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니까? 이제 한국은 가을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인지 지루한 무더위로 고생이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늘 두 손 모아 기도하던데, 나라가 안정되고, 공동체가 평안하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 캠퍼스 및 청년사역(안달라스 대학교)

▶안달라스대학교 개교 68주년 기념 학과별 및 국제학생부 문화전시회



이곳 안달라스대학교 개교 68주년을 맞아 각 학과별 및 국제학생부 문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비록 작고 외진 도시이지만 태국이나 베트남,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유학생들이 있는데도, 국제학생부 소속 각 나라 문화전시회에 참여코자 하는 외국인학생들이 너무 적어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K-POP과 함께 한국 의상(한복)과 떡볶이, 김밥, 김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저희 한국부스만 음식들을 맛보겠다고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여학생들은 한복을 입어보며 자신을 한껏 뽐내고 사진을 찍으며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에 계속적인 참여를 요청받아 김사라 선생이 밤을 세워가며 김밥과 떡볶이를 또 만들어 이틀날도 섬겼고, 둘째날엔 총장님도 오셔서 저희를 격려하며 함께 축하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저희들이 전하는福音도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청년 <빌라>(아빠 인드라, 엄마 미다, 쌍둥이 언니 요나, 요니, 남동생 라빠)



빌라 여청년은 계속 공부와 信仰훈련을 병행하며 聖靈 충만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7시간하고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고, 따로 큐티를 하고, 매일 저희랑 福音서의 내용을 배워가며 실제 삶에 적용하고, 밤에는 큐티한 내용을 적어 숙제로 제출하면 제가 체크를 해서 잘못된 이해한 부분을 고쳐주고 이렇게 경건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올곧게 자라가는 것만 봐도 기쁜데, 본인이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주님나라 위해 일하기를 원해 스스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토플공부도 하며 향후 독립적인 생활을 대비해 김사라 선생에게 요리도 배우고 운동으로 체력도 기르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따로 설 시간도 없이 토요일이나 주일엔 저희랑 함께 무슬림청년 傳道모임에 동참하거나 어려운 가정(밀따홀이나 띠까가정)을 함께 돌아보며 심방하는 일에도 동참하면서 이젠 의젓한 福音사역의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마을을 방문 중인데, 어저께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도 참석해 여러 가지 일을 돕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의 말이 자신은 부족하지만 엄마와 친구들에게 스경과 예시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비록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그 시도가 장하고 대견해보였습니다. 주님~그들 속에 계속 일하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Men.

◎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며 (여러 M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 **쌍까락 호숫가, 말랄로 마을** 이맘 **“말린”**과 부인 **“이까사리”**, 그의 가족들, 친구, 이웃사람들.



서로 만나기 위해 버리고 별리 9월초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말린과 이까사리 부부는 모시고 사는 처조모가 연로한데다 몸이 많이 불편해 자신들이 여행을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어 갑자기 **빠당**에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희도 갑자기 학교행사 참석으로 바쁘다 보니 가보지를 못하고 서로 SNS로, ZOOM으로 소통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말린의 마음이 무언가 조금 더 갈급하고 열렸을 때 저희가 가보는 게 맞겠다 싶어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聖靈님의 감동이 그들을 위한 ㄱㄷ를 멈추지 말라고 하셔서 기대와 소망 중에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계속 ㄱㄷ하고 있습니다.

▶ **쌀락동네** 마스진 책임자 이맘 **“푸안”**과 부인 **“니따”** 그리고 딸 **“아유니”**와 두 아들 **라빠**, **아딧**.

저희가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동네가게에서 가끔 푸안씨를 만나기도 하고, 딸 **아유니**(공무원)는 가끔 한 번씩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아유니**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빙둘러서 얘기하기를, 우리랑 함께 어떤? 공부를 해보자고 했더니 너무 부담을 느낀 것 같아 한동안 서로 만남이 뜸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맘 푸안씨의 가족을 위해 계속 ㄱㄷ하는데 聖靈님의 감동이 있어 딸 **아유니**에게 바로 연락을 하고는 서로 약속날짜를 잡아 이사한 집으로 초대를 하여 함께 식사하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너무 부담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동안의 근황이나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지, 집안 식구들 형편도 물으면서 그렇게 옛날처럼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담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직장생활에 캐리어가 쌓여가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그런지 차림새도 부티나게 차려입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공허한 모습을 감추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게 때가 되어가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빌라**도 동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참으로 세상이 좁고 좁은 것은 **빌라**의 남자사촌이 대학 졸업 전에 견습생으로 **아유니**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즉시 사촌 **자밀**에게 화상통화를 걸어 서로 함께 웃었습니다. 그 일 후에 우리는 **빌라**에게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 함께 **아유니**와 그 가족들을 위해 더욱 ㄱㄷ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가 ㄱㄷ하고 있는 푸안씨와 그 가족들(딸 **아유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 **안달라스 대학교 언어센터** 여직원 **“헬마”**와 남편, 우스타드 **“울렛”**, 아들 **하피즈**.



정말 얘기치 않게 그동안 저희가 만났던 여러 우스타드들과 자꾸만 관계가 뜸해지고(때로는 자연재해로), 사실 몇몇 분은 스스로 부담스러워하며 저희를 멀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스타드는 알아갈수록 영적인 것보다 돈 버는데 관심이 가득한 것 같아 저희가 잠시 멀리하기도 하면서, 그동안 저희 부부는 답

답한 마음에 “주여, 정말 저희가 찾아야 할 영혼, 주님 나라 위해 준비된 영혼, 자기 종족(미남까바우)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일꾼, 주께서 선택하신 충성된 종, 특심이 뛰어난 **우스타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만나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람 중에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진전도 없을 때, 저희도 사실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딜라** 자매(소개드린 영어학원 강사)와 얘기를 나누던 가운데 안달라스대학교 언어센터 여직원인 **헬마**(아주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해 애쓰다가 이번에 아들을 낳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며칠 후 전화를 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 애기옷도 선물하며 축하해주고 오랜만에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그동안 기도했었는데, 주님은 어떤 뜻이 있는지요?’ 라고 묻고 갔었는데, **헬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신랑이 작은 대학의 교수로 있지만 또한 “**우스타드**”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이 번쩍 뜨였고, ‘아하, 주님이 이 가정에 우리를 오게 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했고, 그 후에 저희는 기도를 하고는 다시 약속을 잡아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울렷씨**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것저것 **信仰**적인 것들을 묻기도 하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모판작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근본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선한 것 같았고, **信仰**적으로도 참 경건하여 (무수림으로서) 매일 기도하고, (비록 꾸란이지만) 매일 읽고 묵상도 하고, 무엇보다 삶으로 **信仰**의 본을 보이는 분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아랍어에도 능통하여 꾸란구절을 바로 번역도 가능하고 꾸란내용을 주해(해석)도 할 줄 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기는 이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충성된 일꾼이기를 소망해봅니다. ‘주여~계속 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옵소서!’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감사합니다.

▶ 새 동네(부깃블림빙)의 통장(씨족지도자 겸 마을지도자) **“아딜”**과 부인**“페니”**, 큰딸 **예사**, 아들 **후세인**, 막내딸 **데나**, 여러 형제와 사촌, 조카, 가족들.



저희가 이곳 **부깃블림빙**으로 새로 이사한 후에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며 공을 들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딜**씨입니다. 왜냐하면 **씨족지도자 겸 동네지도자**이고, 어딘지 모르게 점잖고, 부인 **페니**도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저희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나누고, 한국음식을 하면 의도적으로 조금씩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지난 8월17일 **독립기념일** 축하 주민행사에서도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친해져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녁이나 밤에 기도할 때마다 주변이웃들 이름과 함께 이 부부의 이름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이들 주변 이웃들에게 언제쯤 일하실건지요? 이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믿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면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19일 저녁 무렵에 동네분들 SNS그룹에 인스타그램의 어떤 기사가 떠서 들어가 봤더니 모자이크 처리가 된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우리 동네사람 같아서 누구지? 하면서 ‘아하~또 이웃아저씨들이 가짜사진으로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후에 뉴스를 통해 알고 보니, 마을지도자 **아딜**씨가 진짜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죄목이 **필로폰(마약)판매**자였고, 함께 잡힌 일행들 3명은 **빠당 옆 먼따와이섬 현직 지방의회의원들(DPRD)**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충격! 충격!!** 그



expandingmentawai UPDATE 1111 INFORMASI 3 ORKUM ANGGOTA DEWAN KEPENTARAI DITINGGAP KAJANA MELAKUKAN PESTA NARKO**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몇몇 이웃들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부인 페니도 그동안 알고 있었을텐데 아마도 남편이 이제 그만두었다고 말하니까 그런가하고 믿었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며칠간을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ㄱㄷ를 하는데 주님이 문득 깨닫게 하시기를, “네가 ㄱㄷ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를 불러 회개케 하려고 그의 삶에 개입하여 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간섭하시는 주님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으니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리라 여기고 저희가 계속 ㄱㄷ하고 있는데, 이 부부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ㄱㄷ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사람이 된다면, 바울처럼 죽음도 불사하고 福音을 전하며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새로운 주변(M)이웃들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친목모임, 상조계모임, 아주머니들모임

▶ 성격이 아주 밝고 씩씩하고 친절한 샤라 아주머니(남편 페니, 큰딸 카르띠까와 큰아들 하난, 둘째딸 피오나, 막내아들 레즈끼)

이 가족을 위해 저희는 참 많이도 시간과 노력, 물질과 기도(정성)를 쏟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의 원대로 이 가족들이 저희를 잘 믿고 따라주며 함께 주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온 것도 아닙니다. 밀고 당기는 과정이 끝이 보이지 않게 길어지고 그래서 한 때는 낙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고~그분의 행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런 가운데 띠까와 하난이 크면서 요즘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그나마 잦아지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매달 장학금을 전달할 때, 샤라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주중에 어떤 중요한 도움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샤라아주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 저희를 도와주어 이래저래 만남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띠까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성실해서 방과 후에는 어린 막내애기를 돌보는 엄마를 곁에서 잘 돕는,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착한 딸인지라, 비록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쁜 아이를 따로 불러서 만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이번에 빌라여청년과 함께 그 집에 심방을 가서 앞으로는 언니가 머무르는 숙소(훈련센터)에 자주 와서 함께 자면서 시험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샤라부인도 흔쾌히 동의하며 사춘기의 띠까가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애기웃과 분유를 전달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ㄱㄷ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빌라와 함께 회의를 해서 띠까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서로 의논하며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띠까의 삶이 좋은 변화의 계기를 맞아 큰 발전과 성숙,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ㄱㄷ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주변이웃들과의 독립기념일 축하행사 및 가까운 이웃들과의 친목모임(집 앞 골목, 남녀노소 모두)

지난 소식지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새로 이사한 후 부깃블링동네이웃들과 삼시간에 서로 친해지면서 이웃공동체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어울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날마다 그들과 놀아주지 못하다보니 그들이 점점 서운한 기색을 보이더니 언제부터인가 모두가 하나같이 저희를 그림자 취급하며 보아도 본체만체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는 내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인내하며 묵묵히 주님께 ㄱ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독립



기념일 축하행사일이 가까워져 오자, 서로 모여 축하행사논의도 하고, 가정마다 십시일반 돈도 모아서 행사선물도 사고, 또 함께 협력해서 골목에 행사천막도 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갈 때 많이 바빴지만 저희도 동참하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종일 동네식구 대가족이 여러 가지 재밌는 공동체게임을 하며 서로 웃고 즐기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웃들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후에 저의 대학원 논문제안서 작성이 마무리되어 그제야 시간 여유가 되어서 저는 이웃들 SNS 그룹에 그동안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작은 글도 올리고, 언제 시간 날 때 저희가 한 톱을 낼 테니 우리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 날을 잡아 골목에 함께 모였고, 먹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조금이나마 서로 더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암튼 이렇게 끈끈한 M이웃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다보니 예기치 않은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걸 보고 참 갈 길이 너무 멀구나! 하는 낙심도 되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 이 모든 과정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나 원하는 열매를 떠나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하며 M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줄 알기에, 저희는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상조계모임에도, 아주머니들 친목계모임에도 즐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함께 ㄱ해주세요!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감사합니다.



◎ 저희와 이웃(수마프라섬 미남까바우족 Mu슬림)을 위해 필요한 도고

1. 매일 예배와 큐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매일매순간을 은혜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보살펴주소서. 聖靈의 충만한 은혜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으사 저희의 사역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옵소서.
2. 이곳 MK족을 품은 저희의 사랑이 참되게 하시고, 하느님이 주신 킹덤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이웃과 잘 어울리며 의미 있는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빌라도 聖靈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담대하게 福音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스타드 전도에도 문을 열어주소서! 교제하는 M선생들과 아주머니들과 그 가족들도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3. 정이브라힘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사 졸업논문작성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되, 새 비자나 모든 길이 계속 형통하도록 선히 인도해주옵소서! 귀국과 선ㄱ보고, 치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순탄하게 하옵소서!
4. 이브라힘의 모친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소망을 갖도록. 사라의 모친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딸 예림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과 삶이 더 건강하고 강해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들 유신이라도 졸업학기에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후원 계좌번호

농협(정★성) 703023-56-015967 우리(정★성) 1002-359-366943 하나(정★성) 167-890741-30807

★ 이 자료를 인터넷에는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저희의 본명은 사용하지 마시길~~)